

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아!

떠나라 남이섬으로!




육지의 왕자를 사랑한 인어공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완성한 안데르센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부른다. 장소는 그의 동화만큼이나 신비스러운 곳 춘천 남이섬 안데르센 홀이다. 나무와 꽃길 사이로 타조가 돌아다니는 아름다운 남이섬은 올 여름 한 권의 동화책처럼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. 그 중에서도 진풍경을 이루는 것은 방학을 맞아 부모 손을 잡고 <안데르센 동화와 원화전>을 관람하러 온 아이들 모습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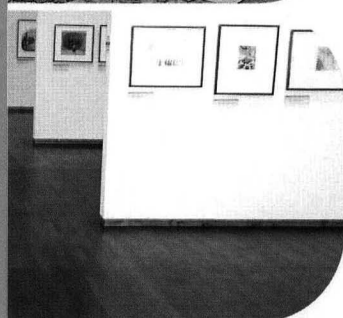
H
a
n
c
h
r
i
s
t
i
a
n

〈안데르센 동화와 원화전〉은 〈인어공주〉, 〈성냥팔이 소녀〉 등 세계적인 동화를 남긴 안데르센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. 이미 대만,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 국제적인 행사는 남이섬의 8월을 환상적인 꿈의 나라로 채색해 나간다. 이야기와 그림, 놀이가 함께 어우러진 이 행사를 주최한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회, 국제아동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(KBBY)측은 안데르센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안데르센 동화 속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. 그런 점에서 기획팀측은 동화의 원본이나 그림을 전시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〈스토리 시대〉의 서막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. 단순한 '동화 읽기'에서 벗어나 멀티콘텐츠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접근을 시도한 셈이다.

이미 서울과 광주에서 한차례씩 선을 보였던 이 전시는 안데르센의 작품소개는 물론이고 국내외 유명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도 소개한다. 참여 국가만도 8개국에 22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역시 235점이나 된다. 전시되는 주요작품들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은 안데르센이 직접 자신의 삽화작가로 선정했던 빌헬름 페텔센과 로렐츠 프롤리히의 작품들이다. 그리고 국내 유명 안데르센 전집의 삽화를 그린 작가들 중에서 우리작가 김복태, 홍성찬 씨 등의 원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즐거움 중의 하나다.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는 덴마크 안데르센 박물관에 소장된 '안데르센 육필원고'다. 주최측은 1850년 안데르센의 동화 초판본과 함께 안데르센의 육필원고를 소개하면서 동화나라 왕으로 알려진 안데르센의 숨결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려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. 이 밖에 조약돌에 동화주인공 그리기, 나만의 동화캐릭터 만들기 등이 상설행사로 펼쳐지기 때문에 안데르센 왕국에 들어온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꿈의 세계에 젖어들 수 있다. 그렇지만 안데르센 홀만 둘러보고 오는 건 손해다. 남이섬 내 〈레종갤러리〉에서 우리작가 한병호 씨의 〈도깨비 그림책〉 원화전이 펼쳐지고 있으니 안데르센 동화세계와는 또 다른 그림책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.

남이섬에서 펼쳐지는 〈안데르센 동화와 원화전〉은 8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행사가 끝난 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서울랜드 기획전시실로 장소를 옮겨 서울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을 만날 예정이다. 

취재 김정연 기자 · 사진 박신우 기자



원화 작품 속에 흠뻑 빠진 아이들.

